광주경총, 고용 선순환·의제 주도 '컨트롤타워' 우뚝

양진석 회장 취임 2년 만 회원사 300개→862개 성장
금요조찬포럼 정책 이슈 공동 대응…기업안전망 역할

양진석 회장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역 경제계의 든든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양진석 회장이 취임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회원사가 300개에서 862개로 늘어나며 3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역 기업들이 광주경총에 거는 기대와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 대전환 속에서 광주경총은 단순한 지원 조직을 넘어 지식 플랫폼과 협력 생태계, 나아가 정책 파트너로 변모했다는 평가다.

1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양진석 회장 취임 이후 광주경총이 가장 힘을 쏟은 것은 지역 리더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이다.

대표 사례가 매주 금요일 아침 열리는 '금요조찬포럼'이다. 기업 CEO와 기관장, 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ESG, 글로벌 경제 동향 등 최신 경영 트렌드와 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이 포럼은 단순한 강연장을 넘어 업종 간 장벽을 허물고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는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광주 경제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광주가 직면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관련해 광주경총은 해법을 '양질의 일자리'에서 찾았다.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의 제2차 노사민정 포럼겸 제1699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에서 강연에 나선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네 번째)과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오른쪽 세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등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청년들을 연계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준비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며 대학은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는 이른바 '윈-윈-윈' 구조를 구축했다.

중소기업의 안전망 역할도 강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커지자 광주경총은 '중대재해 예방·대응 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장 컨설팅, 법률 자문, CEO 교육 등을 제공했다.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광주경총은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발전의 장기 현안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를 지원했고, 영호남 상생의 상징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에도 앞장섰다.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제약해온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모아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굵직한 의제를 주도하며 지역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다.

현재 광주경총은 미래차 산업 기반 구축, AI 산업 고도화, 회원사 협업을 통한 신사업 모델 발굴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제 광주경총이 단순한 경영자 단체를 넘어 지역 경제의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년간의 성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법원, 위니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김치냉장고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위니아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1-1부는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내렸다.

법원은 위니아 측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주주 등의 목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주식 신고 기간을 이달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정했다. 아울러 회생계획안은 내년 1월 9일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정해진 제출 기간과 신고 기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청산형 회생계획의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우선되는 점, 채무자의 자산을 인수하겠다는 인수의향자와의 협상 내용이 구체적이고, 인수의향자가 인수의향 금액의 5%를 (예정)매각주관사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인수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특히 회생채권자들 중 광주 소재 채무자의 협력업체들 일부는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해도 채무자의 회생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최종 선정

전남도가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 및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전남도를 비롯해 경남도, 대구시, 울산시, 제주도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AI 활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빠른 AI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산업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5개 지자체에 약 70억원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도 동일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화학·철강·세라믹 등 소부장 산업, 제약·식품 등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주력산업 기업의 AI 도입수준을 심층 진단해 맞춤형 AI 설비 및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특성에 적합한 대표 AI Agent를 개발 및 실증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소비쿠폰+쌀 나눔'으로 전남 민생회복 박차

여수 교동시장서 소비쿠폰 사용 촉진 캠페인
농협·광주은행 기부 쌀 300포 활용 나눔행사

전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와 전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여수 교동시장에서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은 쌀(5㎏) 300포를 활용해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진작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여수시 기획경제국장, 농협 경제부본부장, 광주은행 부행장, 전남·여수 소상공인연합회장, 교동시장 상인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동시장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진작을 위해 당일 5만 9000원 이상 결제 영수증을 제시한 소비자 300명에게 쌀을 나눔하며 추석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했다.

박정선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는 농협과 광주은행의 따뜻한 쌀 기부 덕분에 가능했다"며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 독려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부식을 통해 전달된 쌀 300포는 행사 당일 나눔행사 물품으로 제공,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의 선순환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지난달 30일 기준 83.7%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1차에 이어 2차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기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와 전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여수 교동시장에서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은 쌀(5㎏) 300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진작 캠페인'을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추석맞이 사랑나눔 전달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30일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에 대한 '추석맞이 사랑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을 비롯해 협동조합 이사장,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김승재 광주시상인연합회장, 지역 복지기관 대표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과 추석맞이 명절음식키트 1200인분을 지역 내 복지기관 17곳에 전달했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이번 사랑나눔 물품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했다"며 "추석을 맞아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복지시설을 선정, 후원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